

# 동북아 고대사 연구의 신기원

## ： 고고학으로 재탄생한 부여사와 그 기억\*

심재훈\*\*

### 목 차

- |                      |               |
|----------------------|---------------|
| I. 부여사 연구의 새로운 장     | IV. 고조선은 어디에? |
| II. 다양한 문제 제기        | V. 아쉬움과 희망    |
| III. 건국신화 재해석과 기억 연구 |               |

### 국문 요약

1980년대 아래吉林과 그 주변의 고고학 성과는 부여사 연구의 새로운장을 열고 있다. 이 글은 2016년 영문으로 출간된 마크 바잉턴의『동북아시아의 고대국가 부여: 고고학과 역사적 기억』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나아가 그 연구가 한국과 동북아 고대사 연구에 제시하는 새로운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기해보고자 한다. 특히 부여와 고구려, 백제의 건국신화가 특정 시기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고안된 신화에 불과하다는 저자의 해석을 기억 연구와 관련하여 되짚어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상기하게 되는 고조선 연구의 본질적 취약성도 함께 지적하고자 한다.

주제어 : 마크 바잉턴, 부여, 건국신화, 문화적 기억, 고조선

\* 이 연구는 2019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js527@dankook.ac.kr

## I. 부여사 연구의 새로운 장

“자료의 한계”, 모든 고대사, 특히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표현일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래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그 한계에 도전해오고 있다. 필자(이하 모두 심재훈을 지칭)가 “기둥 몇 개도 없이 짓는 집”에 비유한<sup>1)</sup> 고조선 연구만 해도 열 손가락을 훌쩍 넘을 정도로 많은 책이 나와 있을 정도다.

그렇지만 한국 고대사 체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그리고 최소한 고조선보다는 많은 자료가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덜 주목 받아온 분야가 있다. 바로 부여사 연구다. 다행히도 최근 1980년대 이후의 고고학 성과에 힘입어 그동안의 산발적 연구를 넘어선 주목할 만한 저작들이 나옵으로써<sup>2)</sup> 그 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들과 비슷한 시점인 2016년 영문으로 출간된 마크 바잉턴의 『동북아시아의 고대국가 부여: 고고학과 역사적 기억』<sup>3)</sup>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sup>4)</sup> 나아가 그 연구가 한국과 동북아 고대사 연구에 제시하는 새로운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기해보고자 한다. 바잉턴의 책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한 아홉 장과 부록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라운판형에 작은 활자로 빽빽하게 채워진 총 398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이다. 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도판이 아주 유용하다. 그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재훈, 2016, 『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 푸른역사, 300쪽.

2) 여러 성과 중에 이종수, 2009, 『松花江流域 초기철기문화와 夫餘의 문화기원』을 비롯한 후속 연구들이 중국 학계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고고학적 연구 경향을 선도한 바 있다. 90년대 중반 이래 자신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송호정, 2015, 『처음 읽는 부여사』는 연구사 정리와 함께 부여의 기원, 성쇠, 제도, 부여인의 생활, 고고학 유적 소개 등 비교적 충실했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호, 2018, 「부여 정치사 연구」는 주로 문헌기록을 토대로 동부여 문제와 부여 국가 체제에 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3) Mark Byington, 2016, *The Ancient State of Puyō in Northeast Asia: Archaeology and Historical Memory* (Cambridge: Harvard Asia Center).

4) 이 책에 대해서는 네 편의 영문 서평이 나왔지만(Martin T. Bal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49.3 [2017]; Gina L. Barnes, *Journal of Chinese Studies* 65 [2017]; Richard D. McBride II,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2.2 [2017]; Edward J. Shultz,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1.2 [2018]), 대체로 소개에 그치는 정도이다. 필자가 파악하는 한, 국내에서는 위의 이승호 논문의 연구사 부분(9쪽)에서 이 책의 토대가 된 바잉턴의 2003년 하버드대학 박사학위 논문이 한 번, 부여의 성립에 二龍湖 유적(후술)을 통한 燕의 요동 확장이 끼친 영향을 소개한 부분(36쪽)에서 이 책이 한 번 인용되고 있다.

우선 서론에서 부여 국가 형성 과정의 재구성과 그 유산 이해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의 목표를 제시하고 각 장의 내용을 소개한다. 제1장 “동북아시아사의 시작”에서는 부여사 연구의 자료 및 그 연구사 정리와 함께 이 연구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제2장 “중국 동북과 한국의 고대인과 국가”는 부여 성립 이전과 성립기에 燕이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까지 확장하는 과정과 고조선의 모호한 실체에 대해 언급한다. 제3장 “부여 고고학 제1부: 청동기시대 선조”에서는 주로 吉林 중심의 西團山문화와 그 서남쪽 주변의 望花문화를 토대로 先부여의 문화적 발전을 검토한다. 제4장 “부여 고고학 2부: 부여 국가의 형성”은 저자(이하 모두 바잉뎬을 지칭)가 “후서단산(post-Xituaqinshan)”으로 명명한 국가 성립기 부여의 핵심 문화인 泡子沿문화 유적(泡子沿前山, 老河深, 帽兒山묘지 등)과 위의 望花문화를 대체한 凉泉문화, 저자가 285년 慕容의 침략으로 이민된 부여 유민의 유적으로 추정하는 嘉麻洞묘지까지 상세히 다룬다. 제5장 “부여국의 역사”는 문헌기록에 나타난 부여의 성쇠를 중국 왕조와 북방 세력, 고구려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한 일종의 외교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제6장 “부여국의 사회와 영토”에서는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결합하여 부여 사회와 그 문화의 특성을 검토하고, 부여의 핵심지인 吉林의 동쪽과 북쪽, 서남쪽으로 상당히 떨어진 변경 山地에 각각 분포한 일련의 보루 유적을 토대로 부여의 영역을 인상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제7장 “멸망 후 부여의 잔존”은 慕容의 前燕으로 끌려간 부여 유민의 활약과 함께 동부여 문제, 고구려와 말갈, 발해에 얹힌 부여의 유산, 마지막으로 백제의 부여기원설까지 다룬다. 결론에서 부여의 ‘이차(secondary)국가’ 형성 문제와 함께, 이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여와 고구려, 백제 건국신화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세 편의 부록은 부여의 도읍과 고구려 부여성, 발해 부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바잉뎬이 새롭게 내놓은 신선한 주장들은 부여사뿐만 아니라 동북아 고대사 연구 전반에도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 다양한 문제 제기를 일별하고, 건국신화에 대한 저자의 새로운 해석을 기억 연구와 관련하여 재검토한 후, 이 책을 통해 상기하게 되는 고조선 연구의 핵심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 II. 다양한 문제 제기

### 1. 시각 차이

현재 부여사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과 중국 학계는 각각 현대 한국인의 정치적 문화적 조상으로서, 중국사와의 연관성이 강조된 중국 동북의 지역사로서 부여사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2쪽). 이러한 경쟁적 동기부여가 연구를 자극하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래로 고대사 연구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이미 설정된 민족사라는 틀 속에서 가둬진 연구가 비학문적 고려에 기초한 양극화된 주장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3쪽).

따라서 이 책은 기존의 역사서술 틀 밖에서 부여를 개별적 역사 실재로서 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로서 부여 그 자체와 후대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역사서술 상의 장치로 활용한 부여로 구분하여 살펴본다(22쪽). 이러한 측면에서 부여와 연관된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신화는 역사로서가 아닌 역사의 특정 시기에 특정한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도록 고안된 신화로 읽는 것이 더 유용하다(23쪽).

나아가 『論衡』에서 그 최초 형태가 나타나는 부여의 건국신화인 동명 설화 역시 역사적 탐구를 위한 토대로 활용하기 어렵다(25쪽). 예컨대 동명이 袪離에서 망명했다는 이야기가 기존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 위치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처럼,<sup>5)</sup> 저자 역시 북쪽으로부터의 이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는 궁극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문제로 본다(26, 181쪽). 이와 관련하여 서론에서 언급한 아래의 지적은 충분히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학문적 탐구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첫걸음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와 믿을만한 정보를 분리시키고,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요구한다. 그런데 그 평가는 일부 기초 자료가 오래 전에 훨씬 제한적인 구식 정보의 하부체계로부터 창출되어 누적된 해석 기반 아래에 묻혀있다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6쪽).

따라서 저자가 파악하기에 위의 설화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문제는 불가해한 袪離의 위치 추적이 아니라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까지도 지니고 있었던 이주의 기억과 그에 대한

---

5) 이종수, 2009, 『松花江流域 초기철기문화와 夫餘의 문화기원』, 주류성, 195쪽; 송호정, 2015,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51~53쪽; 이승호, 2018, 「부여 정치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0~34쪽.

함의이다(181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글의 Ⅲ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 2. 전국시대 연의 역할과 고조선 문제

전국시대 연의 동방 확장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에서도 고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바잉뎬은 기원전 5세기에 남쪽으로 확장하여 다른 세력과 균형을 이룬 연이 기원전 4세기 후기까지 山海關에서 錦州에 이르는 遼西회랑 지역을 확보했을 것으로 본다. 기원전 3세기 초 이후에는 遼東과 한반도 서북부까지 일련의 과감한 군사 활동을 펼쳐 이 지역까지 장악했다 (40~41쪽).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에서 출토된 다양한 燕式 유적과 유물뿐만 아니라 遼西와 右北平, 요동을 거쳐 壇山里(박천)까지 이어진 연 장성 유적도 연의 점진적 확장을 입증해준다고 본다(51~56쪽). 특히 연 장성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있지만, 대체로 한반도 서북부에는 미치지 못 했을 것으로 보는 한국 학계와는 상당히 다른 주장이다.

고조선에 대해서는 『三國志』의 襄松之(372~451) 주에 인용된 『魏略』에 언급된 연과 조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기원전 4세기까지 고조선이 遼河 동쪽에 있다 기원전 3세기 연의 확장으로 평양 지역으로 위축되었다는 이른바 이동설을 따르는 듯하다(43쪽). 다만 현재까지 遼寧省 서부에서 평양 사이에 기원전 3세기 이전 조직화된 복합 정치체가 존재한 강력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고조선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40쪽). 이 문제는 이 글의 Ⅳ장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다.

어쨌든 漢代까지도 요서와 요동 지역에서 중원과 토착의 혼성문화가 이어지듯, 당시 연의 동방 확장이 인근의 부여 같은 세력들에도 약금술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47쪽). 특히 당시 요동군의 북단 鐵嶺 인근에서 동북쪽으로 150km 떨어진 東遼河 유역 二龍湖의 중원식 夷土 성벽 유적을 부여와 직접 접촉한 연의 전초기지로 추정한다(58~61, 137, 225쪽).

## 3. 先부여와 부여 고고학: 望花와 凉泉문화 이해

저자는 기원전 11세기부터 3~2세기까지 吉林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西團山 문화를 부여의 근간이 된 토착문화로, 저자가 “후서단산문화”로 명명한 기원전 2세기 이후 길림 일대의 泡子沿 문화를 부여의 핵심 문화로 파악한다. 특히 후서단산 초기에 철기문화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연과 한의 영향을 받아 상당히 균질성을 지닌 부여문화로 발전했을 것으로 본다(100쪽). 동파식 과 帶鉤 등의 출토를 통해 길림 서쪽의 흥노나 선비와의 교역도 중시하여, 부여 문화가 서단산

이래의 토착문화를 바탕으로 연 및 한의 중원문화, 서쪽 유목 문화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형성되었으리라 추정한다(102~114쪽).

기존의 연구자들이 길림에서 떨어진 老河深과 西岔沟 등 유적 출토 유물에서 부여 중심부 문화와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족속으로 인정하는 데는 신중한 것과 달리<sup>6)</sup> 바잉뎬은 자료의 한계로 인한 임의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여 문화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동요하 유역 길림성과 요령성의 경계 지역에서 발전한 청동기 문화인 望花문화와 서단산문화의 교류를 부여국 부상의 이해에 중요한 요소로 추정한다(82~88쪽). 나아가 망화문화에 뒤이은 西豐의 철기문화인 凉泉문화를 부여의 일부로 포함시키며 초기 부여 국가가 성장하는 양상 속에서 이해한다(125~131쪽). 前燕의 중심지인 요령 서부 北票의 喇嘛洞 묘지를 285년 慕容의 침략으로 徒民된 부여 유민의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와 함께(131~134쪽),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바잉뎬은 또한 부여국의 핵심인 이른바 “東團山 복합구역(complex)”과 老河深 등 후서단산 초기 유적에서 인구 증가와 공예 전문화, 교역을 관장하는 분배망 확립 등 사회 복합성과 계층화가 급격히 증진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상당 규모의 성벽과 방어 시설을 통해서는 그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집중된 권력을, 말과 마구가 보여주는 기마전의 양상을 통해서도 사회 복합성이 전제된 군사조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136쪽). 뒤에서 언급할 부여의 이차국가 형성은 부분적으로 이를 토대로 한다.

#### 4. 중원 왕조 및 주변 세력과의 관계

고구려를 제외한 부여와 다른 세력과의 관계에 관한 한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는 없는 듯하다. 다만 한과의 관계에서 현도군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여과 고구려 사이에 위치한 현도군의 안정이 부여 남쪽 변경에 대한 고구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었기 때문이다(151쪽). 또한 244년부터 시작된 관구검의 고구려 공격 당시 王頃가 고구려 왕 位宮(227~248년 재위)을 쫓아 옥저를 점령하고 북으로 읍루까지 갔다가 부여를 거쳐 현도군으로 귀환했음을 주목한다. 당시 부여의 친탈자인 位居가 魏의 군대를 영접한 것으로 보아, 부여와 고구려, 한반도의 상황을 전하는「魏志」 등 중국 축 기록은 245~246년 王頃 원정의 산물일 것으로 추정한다(156~157쪽).

---

6) 송호정, 2015, 앞의 책, 158 및 162쪽.

선비족 모용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285년 慕容 麾의 부여 함락 당시 많은 부여인이 북쪽으로 피신하여 이때부터 이 지역이 동부여로 불리게 되었으리라 본다(162쪽).<sup>7)</sup> 『資治通鑑』에 언급된 346년 慕容 鳴의 부여 멸망 이전 백제의 선제 타격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체를 고구려의 오기로 본다.<sup>8)</sup> 다만 저자는 이 공격으로 “西徙近燕”했다는 부여의 도피처에 대해 長春 북쪽의 農安 일대로 보는 일반적 견해와 달리<sup>9)</sup> 앞에서 언급한 凉泉문화로 대표되는 서남쪽의 四平과 遼源 일대를 주목한다(166쪽).<sup>10)</sup> 모용 황이 부여 정복 이후 그 영토가 아니라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 장악하고 부여 왕을 사위로 삼아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한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정받은 부여의 정치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인상을 창출하려는 의도를 읽어낸다(166~167쪽). 나아가 이와 같은 부여의 유산 활용은 다음에 살펴볼 고구려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 5. 고구려와의 관계

고구려 건국신화의 기본 형태가 대부분 부여의 건국신화에서 차용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간의 흐를수록 이야기가 가감되어 광개토왕비문 등 이른 버전은 북부여 기원을, 「동명왕편」 같은 늦은 버전은 동부여 기원을 강조했어도, 고구려 통치기의 부여 기원은 그대로여서, 고구려가 어느 순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동부여를 강조하는 건국신화를 재규정했을 것으로 본다(168~170쪽).<sup>11)</sup> 주몽 신화의 역사성에 회의적인 만큼, 주몽의 부여에서 남쪽으로의 이주에

7) 池內宏이 1930년 제기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수용하는 통설이다. 이승호는 동부여가 3세기 후반 갑자기 나타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부여가 동쪽 융루 방면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敦化↔延吉↔渾春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에 뒤에 ‘동쪽의 부여’로 불리게 된 부여인들의 근거지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본다(이승호, 2018, 앞의 논문, 64~80쪽).

8) 이 공격의 주체를 고구려로 보아 333~336년 사이 前燕의 내란을 틈타 고구려가 이 때 부여를 장악했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여호규,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한국사연구』 91, 20쪽; 이승호, 2018, 위의 논문, 201쪽), 바잉년은 모용 황이 345년 고구려를 공격하여 위축시키며 만주 중부로 향한 동북쪽 루트를 장악했기 때문에(164쪽) 고구려의 부여 중심 병합은 346년보다 몇 년 후의 일로 간주한다(178쪽).

9)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500쪽; 이승호, 2018, 위의 논문, 204쪽.

10) 송호정도 지형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農安 지역보다는 西平과 遼源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송호정, 2015, 앞의 책, 90~91쪽).

11) 바잉년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노태돈도 5세기 동부여 출신의 중앙 정계 진출이나 두만강 유역 동부여 출신일 가능성이 있는 연씨 일족의 6세기 권력 장악이 새로운 건국신화를 도입했을 수 있다고 본다(노태돈, 1999, 앞의 책, 34~42쪽).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부인한다. 초기 고구려의 근거지인 桓仁 지역과 부여 중심지 사이에 현도 군이 가로막고 있어서 부여의 영향력이 미칠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고구려의 고고학 문화도 부여와 아주 달랐기 때문이다. 부여가 비록 고구려왕들의 정신적 정체성의 원천이었을 수 있어도, 그들과 부여의 관계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171~172쪽). 그렇지만 346년 이후 고구려가 부여의 중심을 병합함으로써 부여와 연관성의 의미가 급격히 변한다. 4세기 후반 지역 세력에서 지역 간 정치에 간여하는 안정된 관료제 국가로 급격한 변화를 꾀하던 고구려의 입장에서 부여의 유산 계승 주장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비중국 왕국의 사람과 영토, 정치적 정통성 까지 이어받는 큰 정치적 의미를 지녔으리라 보는 것이다(178~179쪽). 이 문제는 이 글의 Ⅲ장 전국신화 해석에서 더 상세히 다를 것이다.

부여와의 관계가 기록된 『삼국사기』「고구려본기」의 초기 기록에 대해서 연대기 형식으로 서사되지 않은 고구려 전통에서 유래한 원래 이야기를 연대 체계에 맞춘 인상을 받지만, 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168쪽). 특히 大武神王의 부여와 전쟁은 고구려가 확장을 꾀하던 시점인 기원후 12~30년 사이에 현도군의 장악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한 실제 원정일 가능성이 있지만, 당시 고구려의 전력을 감안할 때 그 전장은 부여의 심장부가 아닌 남쪽 경계인 오늘날 通化 북쪽의 劉河와 輝南 사이일 가능성을 제시한다.<sup>12)</sup> 부여 왕 살해 등 후대의 과장이 섞여 들어갔어도 고구려 입장에서 중요한 승리여서 후대에 전국신화의 필수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172~177쪽).

## 6. 보루 유적을 통한 부여 영역의 재구성

부여의 중심인 東團山 구역의 성벽 도시와 그 주변의 龍潭山과 三道嶺, 官地城, 土城子 등 山地의 방어 시설에 대해 설명한 후, 외곽 지역 산지의 소규모 보루 집중 현상에 주목한다. 이를 토대로 부여의 영역 획정이라는 기발하면서도 과감한 주장을 제시한다.

우선 길림의 동쪽 蛟河와 拉法河 유역에 일정 간격으로 밀집한 보루 유적들을 살펴본다. 비교적 대규모의 평지성인 新街(둘레 184m)와 그 남쪽 9km 지점의 유사한 평지성인 富來東과 함께, 근처 산 정상부에도 이 두 성의 관리를 받은 듯한 소규모의 보루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주로 살펴본 蛟河 연안의 18km 사이에만 최소한 10곳 이상의 보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주로 西團山 시기의 이 보루 유적들에 대해 바잉뎬은 挖婁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한

12) 송호정 역시 이 전쟁이 輐發河 유역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송호정, 2015, 앞의 책, 78쪽).

방어 시설로 부여의 동쪽 경계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헌에 언급된 부여의 감옥 같은 원형 성 역시 이러한 언덕의 방어 시설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211~214쪽).

길림 북쪽으로 산지가 끝나는 지점인 上河灣의 송화강 북쪽 지류의 양안에도 蛟河 지역과 유사한 보루들이 밀집해 있어서, 선비 등 유목민을 방어하기 위한 부여 북쪽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이자 경계로 간주한다(214~219쪽). 길림 서남쪽 清源에서 발견된 유사한 보루들을 요동군과 제2현도군 등 연진한과의 경계로(220~222쪽), 東遼河 유역의 보루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서쪽의 연-서한 초의 전초기지인 二龍湖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222~226쪽).

이러한 보루들의 정확한 축조 연대를 확정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지만, 부여로 진입하는 민감한 몇 지역에 구조적으로 유사한 보루가 밀집되었다는 사실에서 부여 국가의 중앙 관리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배치를 통해 앞의 고고학 부분에서 저자가 강조한 서남쪽의 望花-涼泉 문화와 길림의 중심을 두 축으로 부여 국가가 장악한 영역을 획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226~229쪽).

## 7. 부여의 이차국가 형성

부여의 정치 체제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중앙집권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sup>13)</sup> 바잉뎬은 이러한 내재적 접근 방법보다는 사회진화 이론을 통해 그 국가 형성을 살펴본다. 우선 그는 부여가 東團山 구역을 중심으로 국가 단계로 발전한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284쪽), 그 양상에 대해 ‘이차국가’ 이론을 활용한다. 즉 이미 국가에 도달한 사회로부터 교역이나 정복 등 침투적 자극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으리라 보는 것이다. 다만 부여의 경우 식민화 시나리오가 전제된 이차국가보다는 이송래가 고구려의 이차국가 형성 사례에 적용한 ‘자생적 토착(autochthonous)국가’를 거론한다.<sup>14)</sup> 현도군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을 고구려 국가 형성의 독자성에 회의적인 바잉뎬은 이 이론이 오히려 부여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연한 등 중원 국가의 직접 사정거리를 벗어난 위치 요인과 함께(68, 143쪽) 이송래가 그 국가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는 장거리 교역과 영역 획정은 자신이 주목한 부여의 양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13) 송호정은 삼국 초기의 부 체제가 결여되어 부여 왕권이 아직 약했으리라 보는 반면에(송호정, 2015, 위의 책, 110~115쪽), 이승호는 비교적 선진적 형별체계와 함께 加 중심의 官階도 상당히 확립되어 중앙 권력이 강고했을 것으로 추정한다(이승호, 2018, 앞의 논문, 149~176쪽).

14) 이 연구는 국내에서도 영문으로 발표되었다(Song-Nai Rhee, 1989, "Origins of Koguryo State," 『한국상고사학 보』 2, 175~200쪽).

(286~288쪽).

우선 교류의 측면에서 서쪽 유목민과의 교역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주된 자극은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난 중국 국가들의 요동을 향한 팽창이었다. 그 첫 번째가 기원전 3세기 연의 요동 점령으로 인한 길림 지역으로 새로운 토기 유형과 철기의 보급이다. 이 때 연파의 관계가 원거리 우호라면 요동과 남만주, 한반도를 장악한 한은 훨씬 적극적이었다. 특히 新賓 지역에 세워진 현도군에 맞서 구축한 보루를 통한 부여의 요새화 네트워크는 늦어도 기원전 2세기 말까지 부여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 기원전 1세기까지의 두 번째 단계 교역 품목은 농기구 같은 실용기 위주의 첫 번째 단계와 달리 주로 사치품으로, 이를 독점한 王家와 중앙 및 지역의 귀족 통치가 부상했음을 암시한다(289~292쪽).

교역과 함께 앞에서 살펴본 보루를 통한 영역 확장 역시 이차국가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 이는 변경이 중앙의 지휘로 군사적으로 협상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부여 국가가 하나의 정치체로 분열에 저항하는 능력과 민족 정체성까지 지니게 된 표식일 수도 있다고 본다(293~294쪽).

### III. 건국신화 재해석과 기억 연구

이 책의 부제에서 “역사적 기억”을 강조한 저자는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역사를 추구해온 부여와 고구려, 백제의 건국신화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우선 이주라는 주제에서 만주와 한국 정치체들 건국신화의 공통적 형태를 읽어내고(296~297쪽), 그 기능에 대해 브로니스와프 말리노프스키(Bronislaw Malinowski, 1884~1942)의 신화이론에 의존하여 설명한다.<sup>15)</sup> 말리노프스키는 건국신화가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진짜 모습과 상관없이 그것이 만들어진 당대의 ‘사회적 배열(arrangement)’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이러한 신화는 특정 시간과 장소, 사회적 맥락에 구속된 상황적 실재로, 그 신화가 생성된 사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대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진짜 사건의 묘사로 이해되었을지 모르지만,

15) 저자는 Bronislaw Malinowski, *Magic, Science and Religion, and Other Essay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1954)를 인용하지만, 국내에서도 Malinowski의 *Myth in Primitive Psychology* (London, 1926)가 서영대에 의해 번역되었다(말리노우스키 저·서영대 옮김, 1996, 『원시신화론』, 민속원).

오늘날 그것을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298~299쪽).

이러한 측면에서 저자는 亡人으로 대표되는 부여의 아주 설화가 지배귀족과 피지배 주민이 다른 기원을 지닌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과 위계적 통치 형태를 정당화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본다. 귀족과 평민을 구분하는 대행자(agent)의 역할을 부여 건국신화의 첫 번째 기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299쪽).

건국신화는 양 계층을 구분하면서도 하나의 헌장(charter) 속에서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묶어 주는 역할도 한다. 초기 국가 형성의 결과로 더 큰 집단 귀속감이 생기고, 이러한 집단 정체성은 민족적 경계를 고수함으로써 유지된다. 형성 중인 국가의 기원 신화에서 민족성을 구성하는 집합적 이름과 공통 조상 신화, 공유된 역사화 문화, 영역적 연합과 결속력 등이 나타남은 이러한 이치이다. 1세기에 출현한 당대 사회 형태의 표현인 부여의 신화에서 위에서 언급한 집단 정체성의 표현이 다 나타난다. 따라서 저자는 집단의식을 입증하고 영속화하는 대행자로서 신화의 두 번째 기능을 부여 건국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300쪽).

변화하는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따라 변형 가능한 실재로서 신화의 역할은 고구려와 백제 건국신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바잉턴은 한국 학계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되고 있는 고구려와 백제의 부여 기원설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305쪽), 그러한 이해에 도전하는 새로운 해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앞에서 고구려의 부여 유산 활용에 대해 언급했듯이, 왕권 강화의 방편으로 조공체계의 유리함을 인지한 4세기 후반의 고구려 통치자들은 여러 국가들의 공동 체계 내에서 자신들 국가의 기원과 통치가의 영광, 가치 있는 성취에 대해 내세울 역사 서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이에 고구려 역사가들이 중국 왕조나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위해서 존경받는 혈통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고구려의 시조를 부여 통치가에서 갈라진 성분으로 묘사했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여의 유산은 “부여신”的 형식으로 고구려의 국가 의식에 편입되기까지 했다(248~249쪽).

저자는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백제의 건국신화에서도 고구려 및 부여와의 연관성을 확립하려는 교묘한 노력을 감지한다. 특히 석촌동 고분 등을 통해 고고학적으로 입증되는 고구려와의 연관성과는 달리 부여와의 관계는 백제 통치가가 차용했을 수 있는 성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본다.<sup>16)</sup> 백제의 통치자들이나 신화작자들이 고구려의 건국신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16) 백제의 遼西 공략설에 대해서도 385년 慕容氏에게 끌려간 부여의 후예인 餘巖이 몇 달 동안 그 지역을 장악한 사실로 인해 통치가의 성이 같은 백제로 오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272쪽). 여호규도 이와 유사하면서도 더 상세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여호규, 2001, 「百濟의 遼西進出說 再檢討」 『진단학보』 91, 19~21쪽).

자신들 역시 부여의 후손으로 묘사함으로써 백제를 고구려와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려는 기대를 품었을 것이다.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비 중국계 국가들과의 원활한 상호교류를 위해서 존경받는 협통을 만들 필요성도 작용했으리라 본다(274~277쪽).

국가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인정된 협통 차용이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고구려와 백제가 고안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東周시대 열국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가계를 夏商周 삼대 왕조 통치가와 연관시켰고, 특히 남방의 吳越까지 이 대열에 동참했다.<sup>17)</sup> 이렇게 만들어진 협통을 통해서 오월 같은 후속주자도 공통된 소통의 영역 속에서 중원의 나라들과 교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더 후대에도 나타나, 광범위하게 인정된 고대 권위와의 계보적 연결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국가와 정권의 정통성에 필수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302쪽).<sup>18)</sup>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구려와 백제가 굳이 더 많이 알려졌을 중국 왕조와의 연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잉뎬은 이를 통해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신화에서 지역적 국가 형성 과정 중에 나타나는 국지적인 지역 담론의 기반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303쪽). 다시 말해 한국-만주(일부 중국도)의 초기 국가들 사이에서 공유된 국가에 대한 지역 상호간의 언어가 창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297쪽).

이렇듯 기원신화는 국가의 의식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생활화되었고, 발해와 거란도 정도 차이가 있지만 부여의 유산을 활용했다. 신라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부여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20세기 들어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과 연관된 신화가 아닌 역사적 실체로 부활한다. “한국” 정체성과의 연관성이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의 국가로서 취급되는 것이다.<sup>19)</sup> 따라서

17) 남방의 또 다른 강국인 楚의 경우 『史記』에서 黃帝의 손자로 알려진 頗頑의 후예로 나타난다. 반면에 그보다 2~3세기 이전 전국시대 楚나라의 죽간 문헌인 清華簡 『楚居』에서는 楚의 선조를 商王 盤庚과 연결시 키고 있다(심재훈, 2019, 「초나라 역사만 담은 최초의 출토문헌: 清華簡 『楚居』의 역주」 『동양고전연구』 74, 138쪽).

18) 조우연 역시 바잉뎬과 마찬가지로 신화의 역사학적 접근을 지양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그 ‘當代的’ 의미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특히 고구려 시조신화의 부여 出自에서 모계사회 왕위 승계 형태의 잔상과 부여계 친 왕실집단 취합 및 왕실의 혈연적 동질성 공유 목적을 읽어낸다. 부여에서 왔다는 시조 주몽이 이주민 집단을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적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국내외의 관련 연구사 정리와 함께 다양한 신화 이론을 활용하여 고구려 신화에 대해서 흥미로운 해석을 추구한 秀作이다(조우연, 2010, 「고구려始祖神話에 나타난 ‘夫餘出自’의 의미」 『동아시아古代學』 22, 1~50쪽). 조우연이 번역한 王明珂의 「염황자손’과 관련된 근대 ‘네이션’ 관념 구축의 고대적 기반」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華夏의 계보적 기억이 창출되는 과정과 고종세 변경의 제 세력이 황제와의 연줄을 만들어가는 양상, 중국 사회 전반에 족보를 통해 황제와의 혈연적 연결고리가 구축되는 과정까지 잘 보여준다(조우연 옮김, 2009, 『황제,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학술정보, 141~219쪽). 조우연의 위 논문을 소개해준 십사자 한 분께 감사드린다.

19) 한국 고대사 체계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심재훈, 2017, 「요동사와 그 이후: 참여자와 관찰자의 시각」 『歷史學報』 243, 231~260쪽 참조.

저자에게 현재 한국에서 부여가 소비되는 방식도 고구려나 백제 같은 초기 국가 사회들이 스스로를 규정하기 위해 부여를 활용된 방식과 다르지 않다(304쪽). 마지막으로 이들의 계승 관계를 부인한다고 해도 신화적 연속성이라는 사실 자체로 인해 중요한 문화적 연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305쪽).

바잉턴의 건국신화 이해는 기억 연구와도 상통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 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억 연구는 서양사, 특히 근현대사 연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나 얀 아스만(Jan Assmann)은 기억 연구가 고대사의 이해에도 아주 유용한 도구임을 입증한 바 있다. 아스만은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 1877~1945)의 사회적으로 구성된 집단 기억 이론을 보완하여 기억이 문화적 창조물로, 자연발생이 아닌 인위적으로 구축된 것이라는 “문화적 기억” 이론을 제창했다. 이 기억은 한 사회의 지배 엘리트에 의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조직적으로 전승되는 집단 기억으로, 먼 과거까지의 기원에 소급하여 집단의 보편적 정당성을 찾고자 하여 신화적 양상을 띠게 된다. 나아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재편 가능한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sup>20)</sup> 아스만은 이 이론 틀을 고대 이집트와 이스라엘, 근동, 그리스 문명의 다양한 양상에 적용하여 각기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제시했다.<sup>21)</sup>

특히 그는 문화적 기억의 창출에서 문자의 역할을 중시한다. 통상 ‘무문자 사회’에서 기억의 전승은 ‘의례적(ritual) 반복’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문자 사회’에서는 그 ‘의례’가 ‘문헌’(문자 기록)으로 대체되면서 ‘의례적 반복’의 요소는 쇠퇴하고 ‘문헌 해석’의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문헌에 담긴 기억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끊임없이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sup>22)</sup> 기억의 한 형태인 신화가 문자화된 이후에 변용을 거듭할

20)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47~53쪽에 알박스와 아스만의 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다.

21) Jan Assmann, 2011,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우선 이집트의 경우 그 신성한 문자와 함께 경전(canon)이 된 후기 신전을 통해 문화적 기억의 형태로 보존된 그 국가와 문명의 독특한 일관성을 구명한다(147~170쪽).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경험한 외세에 의한 강제 이주와 출애굽이라는 문화적 기억을 토대로 유일신 종교를 발명해냈다(175~204쪽). 히타이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에서는 신과의 맹약을 어긴 죄가 기억 작업의 근간이 되어 기억의 재구성이 신에 의한 처벌이라는 법적이고 신학적인 관심에 의해 통제되었다고 본다(213~232쪽).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경우 미케네와의 문화 사회적 단절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통해 “과거”를 영웅의 시대로 구성케 했는데, 이 역시 문화적 기억의 형태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문헌 비평과 해석 등을 통해 회고적으로 바라본 고대 그리스는 새롭고 다른 문화적 기억으로 태어나 결국 “고전 경전”으로 확립되었다. 고대 그리스 서사문화와 사상은 고정불변적인 이스라엘 경전과 달리 아스만이 hypolepsis(통제된 변이의 형태)라 명명한 기제를 통해 절대 진리는 없다는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247~264쪽).

22) Jan Assman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pp.70~76.

수밖에 없는 이유다.<sup>23)</sup>

지면 관계상 최대한 간략하게 기술한 아스만의 연구는 부여와 고구려, 백제의 건국신화에 대한 바잉턴의 새로운 해석을 적절하게 보완해준다.<sup>24)</sup> 이러한 건국신화 역시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후대에 강조된 고구려 건국신화의 동부여 관련성에 대해 바잉턴과 노태돈의 지적처럼 고구려 스스로가 재규정했을 가능성 못지않게, 그 신화가 재구성된 시대의 산물일 수도 있다고 본다. 광개토왕 비문 등에서 북부여 기원이 강조된 5세기 초와 달리, 고려 지식인의 지리 개념에서 북부여는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미 광개토왕 비문에도 언급된 동부여 정복의 기억과 함께, 12세기경 가능했을 최대 인식 범위인 한반도 북부에 고구려의 기원지를 설정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고구려본기」와 『동명왕편』의 주 무대가 압록강 일대라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25)</sup>

이렇듯 신화를 비롯한 고대사 자료의 기억으로의 치환은 특정 현안에 대한 양자택일의 당위성에서 벗어날 여지를 제공하여 고대사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sup>26)</sup> 다음 장에서 살펴볼 고조선 연구도 거기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23) 부여의 경우 문자를 사용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고구려는 4세기 전반 낙랑 유민이나 중국계 망명인의 영향으로 식자층이 형성되다, 후반에 한자-한문 교육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문서행정이나 문자생활이 본격화 되었을 것으로 본다(여호규, 2011,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96~103쪽). 백제 역시 고구려와 비슷하게 313년 이후 낙랑, 대방계 유입민들을 통해 한자를 도입했고, 근초고왕(346~375) 대에 공식적인 書記제도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윤선태, 2011, 「백제와 신라의 한자, 한문 수용과 변용」『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132~134쪽).

24) 아스만은 변학수가 번역한 책에서(안 아스만 저 · 변학수 옮김, 2009, 『이집트인 모세: 서구 유일신교에 새겨진 이집트의 기억』, 그린비) 역사성이 결여된 모세와 그의 출애굽이 “문화적 기억”으로 탄생하여 변용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기역사 연구와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한 그의 지적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기역사 연구의 목표는 모세에 대한 전통처럼 있음직한 사실의 전통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통들을 집단적 기억의 현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26쪽); “기역사는 현재가 과거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분석한다. 역사적 실증주의의 과제는 역사적 요소와 신화적 요소를 분리하고, 현재를 구성하는 요소와 과거를 보존하는 요소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역사의 과제는 전통에서의 신화적 요소를 분석하고 숨겨진 동기를 발견하는 것이다”(27쪽).

25) 「고구려본기」와 『동명왕편』이 전거로 삼은 『구삼국사』가 산출된 시기의 인식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26) 필자는 二里頭 유적과 하 왕조와의 연관성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서양 학계 논쟁을 다루며 고대사 연구에서 양자택일을 넘어선 새로운 해석 틀을 모색한 바 있다(심재훈, 2020, 「二里頭 중국 고대국가 기원론의 딜레마」『歷史學報』 245, 230~233쪽).

## IV. 고조선은 어디에?

이승호는 부여의 성립을 다루면서 “기원전 2세기 초 고조선 지배 세력의 일시적인 몰락은 예맥사회 내에서 부여의 정치적 자립과 국가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sup>27)</sup>라고 한다. 고조선과 부여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 학계의 일반적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부여를 넘어서 동북아 고대사, 고고학 전반까지 비교적 상세히 분석한 바잉턴의 책을 꼼꼼하게 읽은 독자라면 “과연 고조선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의문에 이를지도 모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잉턴은 기원전 4세기까지 고조선이 遼河 동쪽에 자리했을 것으로 보아 이른바 이동설을 따르는 듯이 보인다. 다만 그는 당시 고조선과 연의 접촉 지점을 錦州 일대에서 遼河口까지로 보면서도, 그 일대에서 복합 정치체로서 고조선의 존재를 입증할 고고학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문헌에 나타나는 당시의 고조선이 족속(people)이나 국가, 지명일 가능성 모두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sup>42쪽</sup>). 특히 부여의 국가 형성에 외부 세력의 자극을 강조하면서 연과 한 등 중원 세력과 북쪽 유목 세력의 영향만 언급할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고조선과 부여의 연관성이 최소한도의 고고학 증거로라도 입증되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바잉턴이 제시한 동북아 최초의 고대 국가로서 부여의 고고학적 확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추구해온 고조선 연구의 근본적 취약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필자는 고조선 연구가 부여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은 중요한 학술적 이유 중의 하나로 국내 학계에서 부여에 대한 기록보다 앞서는 것으로 간주되는 듯한 『관자』와 『산해경』, 『전국책』에 나타나는 조선에 대한 단편적 기록을 들고 싶다. 1990년대 이래로 이 문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sup>28)</sup> 그다지 신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학계의 전문 연구에서도 고조선은 여전히 늦어도 기원전 7세기나 그 이전부터 이미 상당히 발전한 정치체로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sup>29)</sup>

27) 이승호, 2018, 앞의 논문, 38쪽.

28) 노태돈, 1990, 「고조선 중심지 변천에 관한 연구」『韓國史論』23, 31~32쪽; 이성규, 2003,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한국사시민강좌』32, 106~107쪽; 심재훈, 2007,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詩經』『韓奕』편 다시 읽기」『東方學志』137, 277~279쪽.

29) 최근 강인욱은 청동기 유물의 분석을 통해 고조선에 접근하면서 “기원전 7~4세기 중국의 선진(先秦)기록에 중국이 인지한 고조선이라는 실체는 결국 요서지역 – 요동반도 – 한반도로 이어지는 연안의 [비파형동검+다뉴경]의 네트워크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강인욱, 2018, 「초기 고조선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파형동검문화: 기술, 무기, 제사를 중심으로」『한국고고학보』106, 69쪽).

그러나 최근 출간된 한국 학계로서는 상당히 드문 몇 편의 문헌비평 연구는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다. 오강원은 조선과 齊 사이의 교역을 언급한 『관자』「輕重」편에 대한 문헌학적 분석을 통해 漢代에 작성된 것이 분명한 그 기사가 서한의 영역 팽창 과정에서 동방의 대표로 설정된 위만조선과 관련하여 추가된 상징적 기사임을 밝히고 있다.<sup>30)</sup> 「揆度」 편에 나오는 동일한 맥락의 기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는 또한 ‘朝鮮天毒’이 언급된 『산해경』의 「海內經」 역시 그 문헌의 편장 중 가장 늦은 시기인 한대에 저작된 것으로, 거기에 나오는 조선은 준왕이나 그 이전의 고조선이 아닌 위만조선을 의미한다고 본다.<sup>31)</sup> 조선을 列陽의 동쪽에 위치시킨 「海內北經」에도 한대의 인식이 투영되었을 것이다.

이제 『관자』와 『산해경』의 관련 기사를 토대로 기원전 7세기 무렵 고조선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오강원의 탄탄한 분석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내 연구자 중 드물게 오강원의 연구에 주목한 김정열 역시 고조선 관련 문헌기록이 대부분 한대에 성립되었으므로, “각각의 문헌자료가 표방하는 시공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근거로 고조선사를 구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32)</sup>

『전국책』 역시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 朝鮮이 언급된 「燕策一」의 故事는 일찍부터 黃震과 錢穆, 繆文遠, 楊寬 등에 의해 漢代의 위작으로 평가받아 왔다. 최근 구본희도 이 고사에서 趙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雲中과 九原이 蘇秦의 대화상대로 등장하는 燕 文侯의 재위기(361~333B.C.)보다 늦은 趙 武靈王(326~295B.C.) 시기에야 확보된 것을 토대로, 이 기사의 시대 착오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기원전 4~3세기 趙와 秦의 북방 영역 확장이 수차례 걸친 ‘이민족 격퇴 – 장성 축조 – 변군 설치’라는 점진적 과정의 산물이었음에 주목한다. 연의 五郡 설치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 세력을 공략하여 장기간 이루어졌겠지만, 진과 조의 경우와 달리 연 관련 사료가 망실된 탓에, 『사기』「흉노열전」과 「조선열전」 등에 한대의 지리 인식을 바탕으로 동호와 조선만 일거에 장악한 것으로 기술되었으리라 본다.<sup>33)</sup>

바잉턴 역시 고고학 자료가 보여주는 연의 확장을 점진적 과정으로 파악했듯이, 『魏略』에서 연에 의해 격퇴 당해 2천리를 잃었다는 그 문맥상 상당히 강력했어야 할 조선의 존재가 고고학적으로 드러나지 않듯이,<sup>34)</sup> 당시의 조선 역시 연이 정복한 여러 군소 세력 중의 하나일 가능성을

30) 吳江原, 2015, 「『管子』『輕重』篇과『輕重』篇의 古朝鮮 記事」, 『韓國古代史探究』 20, 7~44쪽.

31) 吳江原, 2015, 「『山海經』『海內經』‘朝鮮天毒’ 기사의 맥락과 의미」, 『韓國史研究』 169, 1~31쪽.

32) 김정열, 2017, 「중국 고대 문헌자료의 고조선 기사에 대한 이해」, 『동아시아 속의 고대 遼東』, 중국고중세 사학회 · 한국고대사학회 연합학술회의 발표자료집, 69쪽.

33) 具本燦, 2017, 「망각과 재창출: 『史記』『匈奴列傳』에 기술된 戰國 燕의 영토 확장과 東胡」, 『東洋史學研究』, 140, 217~304쪽.

열어두어야 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위략』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큰 자료이다. 『사기』『조선열전』에는 전국시대 고조선에 대하여 “처음 燕의 전성기로부터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鄭塞를 쌓았다”는 소략한 내용이 전해질 뿐이다. 『삼국지』의 배송지 주에 인용된 3세기 중반 魚豢이 지었다는 『위략』이 조선의 稱王과 서방 2천리 상실을 기술하여 그 간략한 부분을 보완한다. 오강원은 『위략』의 고조선 관련 기록에 대해서도 문헌학적 고찰을 시도한바 있다.<sup>35)</sup> 그는 우선 『삼국지』 배송지 주의 충실함과 함께 『위략』에서 『사기』나 『한서』와 달리 고조선 관련 기술이 더욱 구체화된 사실에 주목한다. 이를 토대로 『위략』의 고조선 관련 기사가 2세기 초에 완성되어 192년 蔡邕의 최종 보완을 거치며 3세기 중반까지 전승되었을 동한의 정사인 『東觀漢記』「지리지」의 내용에 근거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조선의 2천리 상실 기사 등 그 내용이 상당히 정확할 것으로 본다.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설사 가설적 성격이 강한 『동관한기』 유래설을 인정한다고 해도 사마천이나 班固의 시대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수 세기 이후 새롭게 추가된 사실은 그 이야기의 생성 과정에 의문을 품게 한다. 『위략』에 나타나는 조선의 周 왕실 존승 등 명백한 과장의 흔적도 무시할 수 없다. 고조선에서 문자로 전승된 역사가 존재했을 가능성성이 희박한 만큼, 『위략』의 이야기가 위만조선 멸망 이후 낙랑이나 대방 사람들이 중국에 전해준 전설을 토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sup>36)</sup> 노태돈도 2세기 후반의 저작인 『潛夫論』「志氏姓」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위만에 의해 攻伐되어 海中으로 옮겨갔다는 韓姓의 후예”가 반세기 후쯤 『위략』에 準王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된 점을 토대로, 이 이야기를 낙랑의 호족인 韓氏 계통에서 이어져온 전설로 보고 있다.<sup>37)</sup> 『위략』의 기사뿐만 아니라 위만조선 이전의 고조선에 대해 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온 문헌들 대부분도 한대 이후 동북 변경의 대표세력으로 각인된 위만조선을 염두에 두고 창출된 문화적 기억의 일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바잉턴이 이 책에서 고고학적으로 구축한 부여 국가의 면모는 고조선 연구 역시 더욱 단단한 증거로서 주장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모범임이 분명하다.

34) 바잉턴은 요령식 동검의 분포범위가 광범위하지만 그 범위가 반드시 단일한 사회적 종족적 실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기원전 4세기 이후 연의 팽창이 없었더라면 이 문화의 세력 중에서 국가 수준의 사회가 발전했을 수 있었겠지만, 이 압박으로 인해 오히려 요동군의 경계 밖에 있던 부여가 최초로 국가로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한다(68쪽).

35) 오강원, 2012, 「삼국지」배송지 주와 『위략』 고조선 관련 기사, 『정신문화연구』 35-3, 145~175쪽.

36) 今西龍, 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37~141쪽.

37) 노태돈, 2015, 「準王 南遷說에 관한 문헌 자료 검토」『고조선과 익산』, 익산시 · 한국고대사학회, 14~21쪽.

## V. 아쉬움과 희망

한국 고대사 공부가 부족한 필자가 감히 이런 비평논문을 쓰는 것을 만용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분투하고 있는 마크 바잉턴 박사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의라 생각하고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 학문의 폭과 깊이, 꼼꼼한 노력에 탄복하면서<sup>38)</sup> 국내에서 서평은 고사하고 인용조차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만용을 부려보기로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한국 학계와 상당히 다른 저자의 견해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필자만의 기우이길 바란다. 제대로 된 학문적 비판이 바로 저자가 고대하는 최고의 선물일 것이다.

이 책에서 바잉턴은 한국과 중국, 일본 학계의 부여 연구 성과를 대체로 섭렵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 학계와 의견을 공유하는 부분도 많다. 필자가 한 번 더 만용을 부려 이 책의 아쉬운 부분을 굳이 들자면 한국에서 꽤 진행된 듯한 부여의 정치 제도 등 내재적 발전 양상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그러한 연구의 불확실성에 대한 저자의 우려를 짐작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부여의 이차국가 형성을 다룬 부분에서 관련 연구들이 더해지거나 혹은 비판되었더라면 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나아가 서양학계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된 만주와 한반도 초기 국가들의 언어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소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sup>39)</sup>

필자가 파악하는 한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서평에서 나온 유일한 문제는 지나 반스가 제기한 장절의 구성이다. 그는 연대가 뒤섞인 장절 배열의 아쉬움과 함께 제4장의 喇嘛洞 유적 부분을 모용 선비의 공격을 다룬 제5장에 집어넣거나, 제4장의 묘장 자료와 제6장의 성벽 자료 역시 합쳤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본다.<sup>40)</sup> 상당히 방대한 책이라 저자 나름대로의 고려도 있었으리라

38) 바잉턴의 학문과 그가 주도한 하버드 고대한국 프로젝트의 성과 및 구미 학계의 한국 상고사 인식에 대해서는 심재훈, 2016, 「구미의 한국 상고사 연구와 하버드 ‘고대한국 프로젝트’」, 『史學志』 52, 84~107쪽 참조.

39) 특히 헬싱기대학 유하 얀후넨의 연구는 부여와 고구려 및 백제의 연관성에 대해 바잉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향이 있다. 얀후넨은 특히 삼국시대의 언어에 대해 통구스계의 고구려와 일본어의 조어인 백제 지역 언어, 한국어의 조어인 신라 언어로 구분한다. 서쪽의 몽골 선비와 동쪽의 통구스 읍루 사이에 위치한 부여의 언어 정체성이 모호하지만 아무르의 조어(proto-Amuric)일 가능성은 제기한 바 있다(Juha Janhunen, 1996, *Manchuria: An Ethnic History* [Helsinki: The Finno-Ugrian Society], pp.208~210; Janhunen, 2019, "Early Manchuria as a Language Area and the Case for Proto-Amuric," International Colloquium for Early Manchuria/Northern East Asia, 18-19 July, 2019, University of Helsinki).

40) Gina L. Barns 2017, *Journal of Chinese Studies* 65, p.361.

보지만, 필자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비슷한 논지가 중복 서술되는 경향을 지적하고 싶다. 예컨대 저자는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인 고구려의 부여 유산 차용 문제에 대해 제5장과 제7장,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도 반복 서술하고 있다. 물론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독자를 배려하는 저자의 글쓰기 스타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드물지만 몇 군데 오기도 눈에 띈다.<sup>41)</sup>

다행스럽게도 이 책은 현재 실력 있는 전문 번역가가 번역 중에 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 국내에 선을 보일 것이다. 그 이후에 나올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평을 통해서 필자가 이 글에서 정한 “동북아 고대사 연구의 신기원”이라는 제목이 지나친 것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 책이 자료 부족에 허덕이는 한국이나 동북아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역작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두터운 번역서를 꼼꼼히 읽고 고대사 연구에 신선한 영감을 받을 젊은 세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논문 투고일 : 2020.02.28.	논문 심사완료일 : 2020.03.31.	게재확정일 : 2020.04.14.
----------------------	------------------------	---------------------

41) 138쪽의 “the Xichagou site in ‘western’ Liaoning”은 ‘eastern’의 오기인 듯하고, 234쪽 “Yingyang” 榕陽은 “Xingyang”이 맞다. 255쪽의 “扶餘候”는 扶餘侯, 258쪽의 “Makkal-bu” 鄭頡府는 한국어 로마자화 표기라면 “Makhlil-bu”가 맞다. 291쪽의 “negociated though”는 “through”的 오기이다.

## ■ 參考文獻 ■

- 강인욱, 2018, 「초기 고조선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파형동검문화: 기술, 무기, 제사를 중심으로」『한국 고고학보』 106.
- 具本燦, 2017, 「망각과 재창출: 『史記』「匈奴列傳」에 기술된 戰國 燕의 영토 확장과 東胡」『東洋史學研究』 140.
- 今西龍, 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 김정열, 2017, 「중국 고대 문헌자료의 고조선 기사에 대한 이해」『동아시아 속의 고대 遼東』, 중국고중 세사학회 · 한국고대사학회 연합학술회의 발표자료집.
- 노태돈, 1990, 「고조선 중심지 변천에 관한 연구」『韓國史論』 23.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노태돈, 2015, 「準王 南遷說에 관한 문헌 자료 검토」『고조선과 익산』, 익산시 · 한국고대사학회.
- 송호정, 2015,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 심재훈, 2007,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詩經』“韓突”편 다시 읽기」『東方學志』 137.
- 심재훈, 2016, 「구미의 한국 상고사 연구와 하버드 ‘고대한국 프로젝트’」『史學志』 52.
- 심재훈, 2017, 「요동사와 그 이후: 참여자와 관찰자의 시각」『歷史學報』 243.
- 심재훈, 2019, 「초나라 역사만 담은 최초의 출토문헌: 清華簡『楚居』의 역주」『東洋古典研究』 74.
- 심재훈, 2020, 「二里頭 중국 고대국가 기원론의 딜레마」『歷史學報』 245.
- 양 아스만 저 · 변학수 옮김, 2009, 『이집트인 모세: 서구 유일신교에 새겨진 이집트의 기억』, 그린비.
- 여호규,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한국사연구』 91.
- 여호규, 2001, 「百濟의 遼西進出說 再檢討」『震檀學報』 91.
- 여호규, 2011,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 오강원, 2012, 「『삼국지』배송지 주와 『위략』 고조선 관련 기사」『정신문화연구』 35-3.
- 吳江原, 2015, 「『管子』『輕重』篇과 『輕重』篇의 古朝鮮 記事」『韓國古代史探究』 20.
- 吳江原, 2015, 「『山海經』『海內經』‘朝鮮天毒’ 기사의 맥락과 의미」『韓國史研究』 169.
- 윤선태, 2011, 「백제와 신라의 한자, 한문 수용과 변용」『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 이성규, 2003,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한국사시민강좌』 32.
- 이승호, 2018, 「부여 정치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수, 2009, 『松花江流域 초기철기문화와 夫餘의 문화기원』, 주류성.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 조우연, 2010, 「고구려 始祖神話에 나타난 ‘夫餘出自’의 의미」『동아시아古代學』 22.
- 조우연 옮김, 2009, 『황제』,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학술정보.

- Assmann, Jan, 2011,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ns, L. Gina, 2017, Review, *Journal of Chinese Studies* 65.
- Byington, Mark, 2016, *The Ancient State of Puyō in Northeast Asia: Archaeology and Historical Memory* (Cambridge: Harvard Asia Center).
- Janhunen, Juha, 1996, *Manchuria: An Ethnic History* (Helsinki: The Finno-Ugrian Society).
- Janhunen, Juha, 2019, "Early Manchuria as a Language Area and the Case for Proto-Amuric," International Colloquium for Early Manchuria/Northern East Asia, 18-19 July, 2019, University of Helsinki.
- Rhee, Song-Nai, 1989, "Origins of Koguryo State," 『한국상고사학보』 2.

## New Horizons in the Ancient History of Northeast Asia: An Archaeological Revival in the History of Puyō and its Memories

Shim Jaehoon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Jilin region since the 1980s have opened new vistas for the studies of Puyō histor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view article is to introduce the main ideas in Mark Byington's *The State of Puyō in Northeast Asia: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Memory* (2016). I will further argue critically some new issues this book proposes for the studies of ancient Korean and Northeastern Asian history. Especially, noting the "cultural memory" of Jan Assmann, I will support Byington's new interpretations on the foundation myths of Puyō, Koguryō and Paekche, in which he considers the mythic narratives merely as the invention necessary for the societies during the specific periods. Finally, I will point out the essential vulnerabilities this book reminds me of in the studies of Old Chosōn in Korea.

Keywords : Mark Byington, Puyō, foundation myth, cultural memory, Old Chosōn